

299장 - 하나님 사랑은

-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 (2)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 (3)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292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월 14일(수) 기도 담당 : 권인영 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99장 ..... 다 같 이  
 기 도 ..... 이창진 집사  
 성 경 봉 독 ..... 창 4:1~8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가인은 우리 안에 있다』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92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3일(화)	창 4:1~8	가인은 우리 안에 있다
3월 14일(수)	창 4:9~10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3월 15일(목)	창 4:11~15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
3월 16일(금)	창 4:16~26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9일(금)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루 첫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피조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로 향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사오니, 주님 모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

주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새문안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시대를 앞두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년 1부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생수의 강을 맛보고 체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담임목사님을 붙들어주옵소서. 성령의 영감과 충만함을 주셔서 주가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붙들어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새문안교회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가실 때 힘들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주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시며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각처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화평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